



김정혜(독립연구자, 기획자, 번역가)

VIA 2015 (2차) 펠로우십 보고서

개요

- 리서치 구성
- 리서치 내용
- UCL 어번랩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 도시 관련 미술 작업 연구
- 보이지 않는 잉여 공간 (한국)
- 공공공간의 보안-감시-통제 (맥스 콜슨 작업 중심)
- UCL 어번랩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 UCL 어번랩 프로그램 리포트
- UCL 어번랩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 도시 관련 미술 작업 연구 (영문)

[Research 1] Invisible Surplus Space: Art in Urban Settings

[Research 2] Security-Surveillance-Control in Public Spaces

[A dialog with Max Colson] Why Do Public Space and Its Control Matter?

VIA 2015 (2차) 펠로우십 보고서

개요

- 연구자: 김정혜
- UCL 어번랩 리서치 기간: 2015년 7월 15일 ~ 12월 14일
- 연구지도교수: 벤 캠킨(Dr. Ben Campkin), UCL 어번랩 디렉터
- 공동 논의 및 협력 지원: 조던 로위(Jordan Rowe), UCL 어번랩 매니저

리서치 구성 (양방향 연구)

본 연구는 런던 UCL 어번랩의 활동과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전



개하는 도시 관련 논법과 예술적 실천 과정을 국내에 전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어번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도시공간-시각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리서치의 내용 또한 1)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어번랩의 활동 내용과 방법론을 분석하는 부분, 2) 국외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미술가들의 작업을 연구,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어번랩의 방문 연구는 본래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랩 연구는 현지의 자료와 기존 관련 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하면서 후자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번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특성을 관찰하면서 최근 도시관련 프로젝트의 주제와 연구의 방법론, 그리고 시각예술이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발언의 형식을 만들어가는가를 분석해나갔다.

1. UCL 어번랩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2. 도시 관련 미술 작업 연구

1) '보이지 않는 잉여 공간: 도시 공간에서의 미술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Invisible Surplus Space: Art in Urban Settings (the case of visual arts in South Korea)

2) 공공공간의 보안-감시-통제 (맥스 콜슨 작업 중심)

Security-Surveillance-Control in Public Spaces (focusing on Max Colson)

*맥스 콜슨: 현 세인트 센트럴 마틴 Associate Lecturer

*최종 연구 결과 프레젠테이션 (2015년 12월 9일) - 프레젠테이션 녹음 내용 1월 웹 게시

*현재 아티클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매거진 등에 출판할 수 있도록 계획, 협의 중

리서치 내용

1. UCL 어번랩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가을-겨울 시즌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어번랩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내용을 분석, 리뷰하고 랩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관련 연구의 다학제적 협력 형태와 연구 방법론을 파악해 나갔다. 특히 어번랩과 UCL 각 학과와 연계된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작가들의 작업과 활동을 통해 '아카데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 관련 작업을 하는 시각예술가들에게 학문적 연구 환경과 학제간 연계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도시 관련 미술 작업 연구

기존에 제시했던 '잉여 공간'(Surplus Space) 개념을 유지하면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형태의 잉여공간 즉 ① 넓은 의미의 폐기된wasted 공간 (철거되거나 감춰진 잉여 공간 [한국])과 ② 보안, 감시, 통제와 관련된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잉여 공간'은 지그문트 바우만이 자신의 저서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Wasted Lives)》에서 말하는 근대화/산업화의 부작용 즉 근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 형태인 쓰레기 처리와 감시 및 통제 산업의 산물들이 현재 도시 공간에 어떻게 자리하고 (혹은 사라지고) 삶에 어떻게 침투하는가를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폐기된 공간은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도시 관련 시각예술 작업에 관한 연구의 주제로 삼고, 두 번째 감시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은 2014~2015 어번랩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작가인 맥스 콜슨의 작업을 중심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두 소주제는 물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미술 중심으로 폐기된 공간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폐기물을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여 자연 및 구축 환경과 연관된 물질적 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비되고 남겨지고 버려진 것들, 즉 사회가 덮어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의 잔해와 그 공간, 더 이상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포괄함으로써 공간의 문제를 역사성과 시간성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공공공간의 감시 및 통제 문제는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근래에 서구 시각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소주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한국 시각예술을 통해 본 폐기된 잉여 공간에 관한 글과 맥스 콜슨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의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글, 두 가지로 구성되었고 맥스 콜슨과의 다이얼로그를 첨부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시각예술 작업에 관한 내용 발제).

1) 보이지 않는 잉여 공간 (Invisible Surplus Space) (한국)

연구 대상 (한국) 작가 및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김성환의 'Summer Days in Keijo' (2009) 및 서도호의 'Rubbings'(광주비엔날레 2012)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식민 공간과 근대화를 지나면서 공간이 삭제(잉여가치화, 쓰레기화)되는 과정을 연구의 축으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시각예술가들의 도시 관련 프로젝트를 리뷰하면서 이들의 작업을 주제, 방법론, 형식에 따라 구분해나갔다. 연구 과정에서는 2012 런던올림픽이 결정되면서 런던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개발에 맞서 저항하는 영



국 미술가들과 학자들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면서, 형식과 방법론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1) 도시 탐구 시각예술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매체인 사진(다큐멘터리)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2) 정치적, 역사적인 이유로 삭제되거나 버려진 공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미술가들의 작업과 고고학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접목되는가에 주목하며 이를 연구의 축으로 삼았다.

*작가와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의 리뷰 및 랩 연구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윤길중 Gil jung Yoon (서울 기반)
- 강홍구 Kang Hong Goo (서울)
- 정지현 Ji-hyun Chung(서울)
- 이원호 Wonho Lee(서울)
- 김준 Joon Kim(서울, 베를린)
- 서도호 Doho Suh (한국, 유럽, 미주)
- 전혜주 Hye Joo Jun(베를린)
- 김성환 Sung Hwan Kim(뉴욕)
- 박진영 Jin-Young Park (서울, 일본)

2) 공공공간의 보안-감시-통제 (Security-Surveillance-Control in Public Spaces) (맥스 콜슨 작업 중심)

2014~2015년 UCL 어번랩의 레지던시 작가인 맥스 콜슨의 경우, 도시 연구 기반의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 중 유래 없는 관심과 논의를 불러 일으켜 주목된다. 맥스 콜슨은 레버훴(Leverhulm) 펠로우십으로 1년에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어번랩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되어 10개월 간(2014년 9월~2015년 6월) 도시 연구에 기반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사진 작업의 결과물을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cademy)에서 전시하였다. 전시 '버추얼 컨트롤'(Virtual Control)는 원래 2015년 7월 9일부터 한 달 간 열릴 예정이었는데 초반부터 호평이 이어져 9월 27일까지 연장 전시를 하게 되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가와의 대화 (7월 14일), 미술가 제임스 브리들 (James Bridle), 도시 이론가 클레어 멜휘쉬(Dr. Clare Melhuish, 어번랩 부디렉터), 도시공간 전문 법률가 네이션 무어(Dr. Nathan Moore)의 발제로 진행되는 심포지엄 (8월 1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버추얼 컨트롤 워크숍'(Exploring Virtual Control workshop, 8월 18일), 사진 작가 겸 역사 전문가인 루이스 부시(Lewis Bush)와의 대담(9월



26일)이 개최되었다. 콜슨은 RIBA 전시를 발판으로 하여 8월 네덜란드 흐로닝헨에서 열린 Noorderlicht Photofestival에 초청받아 참여하였다.

콜슨의 작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공간의 사유화 그리고 통제와 감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논의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매체로 구현되는 그의 비판적 이미지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콜슨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관심 주제를 공유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아티스트 올리 팔머(Ollie Palmer, 2015~2016 팔레 드 도쿄 레지던시 작가, 바틀렛 박사과정)와 협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RIBA 전시장에는 콜슨의 사진 작업과 함께 팔머의 설치(카메라 설치 및 중계)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고, 이 둘은 8월 18일에 열린 퍼블릭 워크숍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콜슨은 뒤이어 UCL Civil and Geomatic Engineering 레지던시 작가인 조이 쇠허(Zoe Schoenherr)와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아카데미 레지던시 작가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의 묘를 보여주었다—쇠허와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콜슨은 공공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런던의 이층 버스 공간에 적용하였다. 즉 고급좌석과 일반석으로 구분된, 사유화된 [공공] 버스 디자인으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가상의 설정을 스토리라인으로 한 홍보용 3D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실제 이층 버스를 개조하여 영상과 설치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9월 3일, 10월 26일). 이 소주제 연구에서는 콜슨의 작업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의 의미를 재고찰하고, 공공공간의 사유화, 감시와 통제라는 사회적 문제를 시각예술가가 어떠한 형식을 통해 문제제기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도시공간 전문 법률가 네이션 무어가 말하는 '공공'과 '공공공간'의 정의와 견해를 기초로 하였고, 콜슨과의 대담을 첨부하였다.

*기초 참고 텍스트

Ben Campkin, *Remaking London: Decline and Regeneration in Urban Culture* (I. B. Tauris, 2013). Hilary Powell and Isaac Marrero-Guillamon ed., *Art of Dissent: Adventures in London's Olympic State* (Marshgate Press, 2012).

UCL 어번랩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1. UCL 어번랩 프로그램 리포트

2015년 가을 UCL 어번랩에서는 여느 시즌과 마찬가지로 강연, 심포지엄, 연구자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크, 출판기념회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랩과 연계된 기관과의 협력 프



로그림 기획,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작가들의 전시 및 워크숍, 도시 사운드 아트 프레젠테이션, 그 밖에 '퀴어'(queer, LGBT 젠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평등과 인권 문제로 확장)와 도시 공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세미나, 도시의 밤 풍경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 등이 이어졌다. 사진, 필름, 사운드 아트가 주요 연구 매체로 활용되는 것은 도시 연구에서 감각적(sensorial) 자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어번랩은 <어번랩+ 런던 심포지엄 2015 '글로벌 도시 고등 교육: 국제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번 시즌 최대 규모의 중심 행사로 기획하여, 각종 도시 문제와 교육의 관계를 조명했다 ('어번랩+'는 각국의 어번랩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이틀간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는 1) 신자유주의로 인한 교육기관의 자본중심화가 도시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위 제3 세계 개발국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갈 잠재적 힘의 모태인 고등 교육 현장이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인가 2) 공동체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3) 비영리 [문화] 교육의 가능성 4) 정부 개입의 적정 범위 5) 공동체 교육에서 주체적 참여란 가능한가 등이 각 도시에서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현장 경험자들의 발제를 통해 논의되었다. 아울러 아랍 분쟁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이민자/난민은 유럽 각 도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선진국들의 삶의 형태는 환경 난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도시 관련 논의에서 난민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이러한 순환고리적인 도시적(어번)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발표자인 에이드리언 라후드가 내세운 '스케일'(scale) 개념—세계의 몸(체)를 구축하는 단위 개념으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 설명—은 각 도시의 문제를 인류라는 몸체, 생태계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이 심포지엄에서 논하는 교육은 비단 교육 기관과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상황이 지역적 환경과 삶의 여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다시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영향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은 도시적(어번)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방법론(urban methodologies) 혹은 접근 방식으로서의 키워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시즌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영향으로 나타나는 도시의 변화가 가장 중대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대기업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공공주택지 철거 등은 2012 런던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근 10년 간 런던의 도시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그 후 이 문제는 런던 동부 지역에서 나아가 도시 전체의 공공공간 사유화의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감시와 통제 문제가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4~2015 어번랩의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작가들 역시 대규모 랜드마크 건축물의 도시 점유(툼 윌슬리 Tom Wolseley)와 공공공간-감시/통제(맥스 콜슨)를 작업의 주제로 삼고 연구에 기반한 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시각예술 작업을 확



장된 논의의 구심점으로 만들어나갔다. 또한 대기업의 도시 공간 점유는 특히 서민층의 주택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번랩에서는 도시 주택 문제를 내년 2016년에는 연구 활동의 중심 주제로 기획하고 있다.

***UCL 어번랩 2015 가을 프로그램 리뷰**

[강연] 제인 M. 제이콥스(예일대-NUS 도시학 교수) 강연 '건물은 죽어야 한다'(Buildings must die)

일시: 9월 15일(화) 12:30~13:30

장소: UCL 지리학과 피어슨 빌딩 전시실 R. G07

스티븐 케언스(Stephen Cairns)와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 <건물은 죽어야 한다>에 기초한 강연이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상하고 깨어지는 콘크리트, 녹슨 철재,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 현장, 철거된 브루털리즘 건축 양식의 건물 등을 관찰하면서 오래되어 낡은 폐허나 (인공적인 힘으로 무너진) 근래의 폐허에 관한 생각들을 풀어나갔다. 건물의 죽음은 '창조' 개념을 재정립하고, 내구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완화시키면서 가치 관념의 폭을 넓혀나갔다. 제이콥스는 이 같은 주장이 기존의 구축 개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재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생각은 '폐기물'과 '가치'에 관한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출판기념회/강연] 모하마드 하페다, 림 샤리프 공저, <페브리크: 크리에이티브 난민> (Febrik's Creative Refuge)

일시: 9월 16일(수) 18:30~19:30

장소: 모자이크 R. 226, 크롬웰 로드, 런던

레바논 출신의 디자인 그룹인 페브리크는, 수 백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촌 내부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공간을 창조하며 살아가는가를 탐구하였고, 이러한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문으로 모하마드 하페다는 바틀렛 스쿨 오브 아키텍처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 이번 행사는 이 논문과 페브리크의 공동 설립자가 공동으로 집필하고 편집하여 발간한 저서 <페브리크: 크리에이티브 난민>(Febrik's Creative Refuge)의 출판기념회이다.

[심포지엄] 어번랩+ 런던 심포지엄 2015 '글로벌 도시 고등 교육: 국제화의 가능성과 한계'

일시: 9월 16(수) ~ 17일(목) 10:00~18:30

장소: UCL 다윈 렉처 시어터



<기조발표> 에이드리언 라후드 (RCA/바틀렛 교수), 수전 파르넬(Susan Parnell, 아프리카 센터 포 시티); <주요 패널>: 제인 M. 제이콥스(예일-NUS 교수), 케런 레비(Caren Levy, UCL 교수), 마이클 키스(Michael Keith, 옥스포드 대학 교수), 앨런 펜(Alan Penn, UCL 교수), 제니 로빈슨(Jenny Robinson, UCL 교수), 카사마 얄트리(Kasama Yamtree, 커뮤니티 아키텍트 네트워크) 외.

*[기조발표]: 에이드리언 라후드 (Adrian Lahoud, 바틀렛 스쿨 오브 아키텍처 교수)

‘Scale’ ... 상황에 개입하는 매개체로서의 개념. 글로벌화, 사건의 진행 과정, 가능한 관계 등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건축적 의미에서 스케일은 측정 단위에 국한될 수 있지만, 구조화, 구축으로 개념을 넓히면 세계를 구성하는 몸(체)와 영혼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스케일은 생태적(ecological) 사고와 의식의 틀을 만드는 개념이기도 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건 반드시 다른 곳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또한 스케일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자니 나이두 (Rajani, 영국 베스[Bath] 대학 교수 및 국제고등교육매니지먼트센터 [CHEM] 디렉터)

“대학이 점차 시장 논리를 따르면서 세계 각지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난민 위기는 고등 교육 기관들이 세계적인 차원의 웰빙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타난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을 순위로 매기는 ‘경쟁 도착증’, 그리고 대학을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은 전세계 모든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비를 내는 학생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치하는가 하는 기준,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압박이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 시리아의 경우 대학과 학생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현재 많은 이들이 망명한 상태이고, 일부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에 가 있지만 대다수는 교육을 중단한 채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다. 시리아 대학들은 종교적, 문화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안전지대였음에도 정부 압력의 타깃이 되어 지금은 폐허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로 구축할 수 있는 힘이다. 이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대학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킬리언 도허티(Killian Doherty, 아키텍처럴 필드 오피스 건축가/디렉터)

DPU(development planning unit) 소속 연구자들과 바틀렛 건축 스쿨, 기타 독일의 연구자들이 1~2 간의 현장 참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세미나에서는 소위 제3세계로 일컫는 지역(주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특히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한



참여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부분의 발제자들은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지식이나 익숙한 교육의 틀을 깨는 '비우는 교육'(un-learning)을 통해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반면, 르완다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킬리언 도허티('Studio Lessons from a Re-emerging Rwanda')는 정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키갈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에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 프로젝트와 더불어 인류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역할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개발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도허티의 르완다 프로젝트 역시 르완다 정부의 수락과 협조 하에 가능하게 된 경우이고, 따라서 이것은 국가 전체의 개발 비전 '제3 세계에서 제1 세계로' (Third World to First), 그리고 키갈리 2020 비전 '도시개발의 선두주자'(A leader in city development)라는 슬로건 하에 편입되는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다. 도허티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라서 비우는 교육보다 '[가르침을 통한 지식/정보의] 습득'(learning)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적 컨텍스트에는 지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 국가 정부의 관여도, 비영리 프로젝트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적 가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우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참여' 프로젝트가 추상적인 의미 단계의 엔터테인먼트로 귀결되는 기존 공공 프로젝트들의 한계를 돌아볼 때 이는 분명 상기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허무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교육(co-learning) 또한 상투적으로까지 보이는 형태이지만, 실제 분명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호'와 '참여'라는 단어의 추상적인 레토릭만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논의에서 컨텍스트라는 말로 압축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도허티의 르완다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듯이,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 정부의 개입(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한 개입. 물론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다) 여부는 프로젝트에서 주체와 대상의 역할 경계를 얼마만큼 분명하게 가르는가 혹은 통합시키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술-디자인-건축 분야를 막론하고 '공공'(public)이라는 이름으로, 또 '참여'라는 이름을 앞세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라는 이름만으로 민주적인 과정과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외적 구조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체의 문제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출판기념회] <어번 팸플리터 #5>(Urban Pamphleteer #5) (어번랩 연례 출판물 출판기념회)

일시: 9월 17일(목) 19:00~20:00

장소: R. G02, 140 햄프스테드 로드, 런던

UCL 어번랩에서 출간하는 연간 전문 간행물 <어번 팸플리터> 제 5호의 출판기념회가 어번랩+ 런던 심포지엄 2015 이후 열렸다.

[전시] '삭제된 세계'(The Deleted World) (맥스 콜슨 참여 전시)

일시: 9월 17일(목) 오픈

장소: 23 헤니지 스트리트, 오프 브릭 레인, 런던

12명의 전시 참여 작가 중 다리오 스크빅(Dario Srbic), 미건 니덤(Meegan Needham), 이경희(골드스미스)의 작업이 주목된다. 특히 골드스미스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경희의 경우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 공간을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가운데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작가들과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작업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토크] 맥스 콜슨 개인전 'Virtual Control': 작가와 사진/역사 전문가인 루이스 부쉬(Lewis Bush)와의 대담

일시: 9월 26일(토)

장소: RIBA

신자유주의 도시 풍경을 강렬한 이중노출로 표현하는 사진 작가이자 비평가인 루이스 부쉬와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감시와 통제 문제를 다루는 맥스 콜슨의 대담으로, 대기업에 잠식되어가는 대도시의 주요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심포지엄] UCL BRE: International Urban Research *BRE: Bartlett Research Exchange

일시: 10월 15일 16:00~18:00

장소: R. 204, 140 햄프스테드 로드, 런던

케런 레비 (UCL DPU 교수), 제니퍼 로빈슨(지리학), 에이드리아나 맬런(DPU), 벤 캄킨 박사(어번랩), 에드워드 데니슨 박사(바틀렛), 콘라드 미치우키비츠(글로벌 번영기구[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푸롱 우 교수(바틀렛)

구축계획, 개발계획,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현재 진행중인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시아, 유럽, 남미 등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연/토크] '연결된 공간, 통제된 움직임: 테크놀로지, 감시, 보안과 도시'(Connected Spaces, Controlled Movements: Technology, Surveillance, Security and City) 강연/토크

일시: 10월 26일, 14:00~15:00

장소: R. 206, 140 햄프스테드 로드, 런던

어번랩 명예 선임 연구자인 브라질 출신의 로드리고 피르미노 (Dr. Rodrigo Firmino, 브라질 쿠리치바, 폰티피컬 카톨릭대학 어번매니지먼트 학과 교수)의 연구 '연결된 공간, 통제된 움직임: 테크놀로지, 감시, 보안, 도시'와 관련 연구자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세미나이다. 여기에서 피르미노는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감시와 증강기술이 만들어내는 '영역(territory)'의 의미와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서 그는 일명 '스마트 테크놀로지'라는 신기술로 연결된 새로운 사회-기술적 통합망에 의해 사적공간과 공공공간의 경계가 어떻게 재정의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퍼포먼스**

UCL 중앙도서관 1층에는 파놉티콘 개념으로 잘 알려진 제레미 밴덤(Jeremy Bentham)의 아이콘(좌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자신의 몸을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일명 '오토-아이콘'(auto-icon)처럼 전시해 달라는 밴덤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유리 캐비닛 안에 보존되어 있는 그의 조상과 유골은 관광객들이 꼭 한 번 들러 사진을 촬영하는 포토 존이 되었다. 2013년 학교에서는 이 오토-아이콘 상단에 웹캠을 설치하여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트위터와 유튜브에 전송되도록 하여 실로 파놉티콘 개념을 구현해냈다. 로드리고 피르미노 박사는 매주 밴덤의 조각상 앞에서 감시와 보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문구를 들고 서서 스스로 파놉티콘의 시선에 갇히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심포지엄] '자유의 공간'(Spaces of Freedom)

일시: 10월 26일(월). 18:30~20:00

장소: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츠

케이니 애쉬(Cany Ash), 애쉬 세쿨러 아키텍츠 설립 파트너

오웬 홉킨스(Owen Hopkins), 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츠 건축 프로그램 큐레이터

애나 맨스필드(Anna Mansfield), 퍼블리카(Publica) 전략프로젝트 디렉터

제임스 미크(James Meek), 저술가, 저널리스트, <프라이빗 아일랜드>(Private Island) 저자

레슬리 톱(Leslie Topp), 런던 버벡 대학교 건축사 교수

제임스 웰쉬(James Welch), 리버티(Liberty) 법률 디렉터



공공공간이 점점 사유화되고 보안과 감시체계가 강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학자, 실무 공간 기획자, 공간 관련 큐레이터,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대를 모았다. 19세기에 파리 전체의 도시 기획을 한 바롱 하우스만 당시부터 공공공간은 특정 계층(부르주아)에 걸맞는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도록 계획되었고, 당시의 권력체제(나폴레옹 3세)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학술적인 접근이 토론의 문을 열었고, 경관건축가/기획자의 입장에서 현재 공공공간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사회성 공동체성 sociability—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포함과 배제를 담고 있는 공공공간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해석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의 사안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다양한 주제들을 긴밀하게 엮으면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시] '연성 구축'(Malleable Architecture) | PAMELA 프로젝트

일시: 10월 28일(수) 오픈 19:00

장소: 유닛 1, 부쉬 인더스트리얼 에스테이트, 스테이션 로드, 터프넬 파크, 런던

Pedestrian | Accessibility | Movement | Environment | Laboratory의 약자로 만들어진 파멜라PAMELA 프로젝트의 전시가 산업시대 공장 부지를 개조한 전시장에서 열렸다. UCL 토목공학과와 협력하고 있는 레지던시 작가인 조이 쇠허(Zoe Schoenherr)와 어번랩 레지던시 작가 맥스 콜슨의 2인 프로젝트로 구성된 전시이다. 특히 런던의 대중교통을 대표하는 이층버스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번 파멜라 프로젝트에서 조각가인 쇠허는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공간의 특성, 그리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의 인간의 움직임을 조각적인 형태로 1차 연구를 한 이후 그것을 조각적 형태로 구축한 뒤 현대 무용가/퍼포머인 홀리 토마스(Holly Thomas)와 협력하여 공간 경험을 퍼포먼스 형태로 보여주었다. 맥스 콜슨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런던의 이층 버스를 우등석과 일반석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버스를 기획하여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가상의 설정 위에 삼차원 투자 유치 동영상을 제작하고(중국어 자막과 더빙), 실제 이층버스의 한 공간을 우등석으로 변형하여 3D 비디오를 감상하고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설치형태를 결합했다. 쇠허가 대중 교통의 공간성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콜슨은 사적 자본이 잠식해가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교통 수단(그 내부 공간)으로 확장시키면서 글로벌 경제와 공공공간의 문제를 풍자적 영상으로 구현했다.

*전시 관련 세미나(11월 9일[월]) 조이 쇠허, 닉 테일러(Prof. Nick Tyler), 홀리 토마스, 제닌 해링턴(Janine Harrington), 사라 아디티야(Dr. Sara Adhitya)



[심포지엄] '신자유주의 도시에 관한 시각들'(Perspectives on the Neoliberal City)

일시: 10월 30일(금), 11:00~16:00

장소: 스위트 D, 노스 사이드, 원캐나다스퀘어 10층, 런던

(진행) 애나 민턴(Anna Minton)

더글러스 스펜서(Douglas Spencer): '시스템으로서의 도시: 신자유주의, 사이버네틱스, 풍 피두센터'

맥스 콜슨(Max Colson): '평범한 가장: 수상한 식물, 의심/혐의, 그리고 사유화된 공공디자인'

폴 와트(Paul Watt): '런던의 현대 주택위기와 행동주의'

루이스 부시(Lewis Bush): '메트로폴리스 나우: 스스로 값아 먹는 런던 바라보기'

사회정치 전문가 겸 도시이론가인 더글러스 스펜서, 런던의 주택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인 폴 와트와 신자유주의 도시의 풍경과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같은 주제로 작업하는 사진 작가 2인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세미나 겸 워크숍이다. 스펜서는 풍피두 센터의 탄생 배경과 구축적 형태 상의 특징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 및 사이버네틱스 이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현대 공간디자인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조명했다. 신자유주의를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 대해 이후 패널들 사이에 오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택 문제 전문가인 폴 와트는 공공주택이 사라져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런던의 주택 분배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되었는지,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런던 동부 지역이 어떠한 위기를 맞고 서민 계층이 어떻게 저항하며 행동해왔는가를 설명하였다. 사진 작가이면서 비평가로 활동하는 루이스 부시는 도시가 사진과 영상을 통해 20세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를 개략하고, 스펜서와 와트의 이론에서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도시 풍경을 이중노출 기법으로 강렬하게 시각화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어번랩 레지던시 작가 맥스 콜슨은 자신의 최근 사진과 영상 프로젝트를 통해 사유화된 공공공간과 이를 통해 계속되는 계층 간의 경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론과 현장 데이터, 그리고 시각 예술가들의 작업이라는 다양한 매개체를 놓고 충분히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워크숍이었다.

[강연] 페그 로스 (미술사 기반 건축사학자)

일시: 11월 4일(수), 18:30~20:00

장소: UCL 잉골스 시어터

17세기 스피노자가 말한 zoe(삶의 공간) 개념을 전 지구적인 환경과 주거난의 문제로 연



결시했다. 인간과 비-인간적인 것 사이의 기하학적인 비례 개념이 미술과 건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아그네스 데니스(Agnes Denes)와 버크민스터 풀러의 지도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이를 현재 영국의 주택 위기와 연관시켜 해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였다.

[프레젠테이션/토크] ‘어번사운드: 런던 드리밍 (마크 피셔)’ (Stadtklang: London Dreaming with Mark Fisher) 사운드

일시: 11월 8일(일), 19:00~22:00

장소: 아콜라 시어터 바, 24 애슈원 스트리트, 달스턴, 런던

골드스미스 강사 마크 피셔가 전후 런던의 각종 문화적 사운드(시, 대중음악에서부터 정치와 관련된 트위터 메시지까지)를 채집하고 전위적으로 편집한 작업이다. 아콜라 시어터 바에서 열린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각 분야의 다양한 관객들이 참석하여 편집된 사운드의 파편들을 잡아내고 그것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공감하는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된 작업의 편집 방법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동연구 세미나] 브리스틀 포스랜드 프로젝트 기초 계획 연구

일시: 11월 13일(금) ~ 20일(금)

장소: 어번랩 연구실

2016년 UCL 어번랩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브리스틀의 포스랜드(Fourthland)프로젝트에 관해 어번랩의 조던 로위와 기초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티스트와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이 진행하는 비정기적, 지속적 도시 커뮤니티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 노년층 멤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이 표방하는 내용은 시각예술, 퍼포먼스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도시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을 국가/시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삶의 환경을 구축하고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개입 혹은 협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내년 UCL 어번랩과 연계했을 때, 런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프레젠테이션] 샌더 홀스헨스 (Sander Holsgens, 네덜란드, 도시연구 기반 필름메이커, 바틀렛 박사과정)

일시: 11월 10일(화) 16:30~18:00 *11월 18일 미팅



장소: R. 204, 140 햄프스테드 로드, 런던

샌더 홀스헨스는 필름과 인류학 전공자로, 현재 한국의 스케이트보더들이 사유화된 공공 공간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홀스헨스는 또한 2015 런던 한국 영화제 단편 영화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수상작은 한국 현장 연구 당시 홈스테이 하던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의 집 안 풍경과 가족들의 다이내믹을 담았다). 그의 필름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실내 공간과 공공공간, 그리고 스케이트보더들의 서브컬처, 보드를 통한 공간만들기를 보여주는 작업으로 주목할만하다.

[방문] 11월 30일(월)

*TU Berlin(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Urban Research and Design Lab: Habitat Unit 방문

해비타트 유닛 디렉터 파올라 알파로 달렌손(Paola Alfaro d'alençon) 미팅

TU 베를린 어번 앤 디자인 랩의 활동은 UCL 어번랩에 비하여 비교적 축소된 형태이다. 유연하고 방대한 간학제적, 기관간의 연계 면에서 UCL 어번랩의 규모나 활동 범위와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이 랩은 베를린 시와 연계된 집중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계의 기획과 제안을 실제 시 정책에 반영하는 점에서 UCL 어번랩과 활동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소, 그 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외부 연구 용역을 주어 도시 환경 디자인의 기획과 제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흡사하다. 다만 우리의 경우 실제 구현되지 못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TU 베를린은 시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예산의 부담이 큰 상태이다). 해마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구원과 학생들이 함께 협력 연구하면서 내용이 충실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Temporary Space'(e.g. 이동 가능한 일시적 팝업 공간)이다.

*Habitat 광범위한 의미의 삶의 환경을 의미한다.

*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Künstlerhaus betanien)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의 큐레이터 오피스를 방문하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레지던시 작가들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현재 레지던시 작가 가운데 이미지와 정보에 기반한 생태환경을 주제로 작업하는 일본 작가 하나에 우타무라를 발견, 비공식적인 미팅을 가졌다.

* ZKU 미술-도시학 센터(ZKU center for art and urbanistics)

ZKU 오피스 방문, 레지던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작가들의 작업이 학자 및 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리서치 기반이라는 점에서 어번랩의 레지던시와 유사했다. 이러한 주제의 작



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행적 퍼포먼스, 사운드나 그밖의 시각 외 감각 형태로 표현된 작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도시 공간의 개조와 재생을 시도하는 건축디자인적 작업 등이 눈에 띄었다. 큐레이터에게는 어떤 아트의 전형적인 유형을 참고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티스트 피트 숄츠 (Pit Schultz) 미팅**

최근 그리스에서 고고학에 기반한 도시 탐구 작업을 진행하고 돌아온 작가 피트 숄츠와 미팅을 가졌다. 셴 스나이더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 작가는 이 주제를 오래 고민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고학 기반의 도시 연구 미술 작업에 관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작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심포지엄] '온 더 슈트'(On the Shoot) (Film+Place+Architecture 팀 주최)

일시: 12월 3일(목), 14:00~18:00

장소: R. 133, 햄프스테드 로드, 런던

마크 루이스(Mark Lewis, 아티스트/필름메이커)

에드 웹-잉갈(Ed Webb-ingall, 필름메이커, Royal Holloway 박사과정)

유제니오 지오르지아니(Eugenio Giorgianni, Royal Holloway 박사과정)

다니 란다우(Dani Landau, UWE 박사과정)

클라라 조 스타 펠로우(Clara Jo Starr Fellow, Royal Academy of Arts)

건축보다는 도시의 사회문화적(인류학적) 탐구에 영상을 매체로 활용하는 연구 작업들이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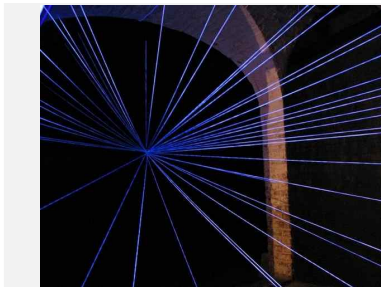
2. UCL 어번랩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탐구

아티스트 레지던스는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기타 예술 기관이 주최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3개월부터 1년 여의 기간 동안 미술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전시/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로는 미술가뿐만 아니라 시인, 비평가와 같은 저술가, 퍼포밍 아티스트도 레지던스에 참여하여 타 분야와의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UCL의 아티스트-인-레지던스는 이와 달리 연구에 기반한 미술 작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작업의 특성에 따라 시각예술과 공간예술, 도시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천문학, 화학, 수학, 물리학, 동물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진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간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맞는 작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카데미 내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학과의 일반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소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유하는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간다. 그리고 두 분야 이상의 다학제적 협력 또한 가능하다. UCL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 가운데 어번랩에서는 별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레버훅 트러스트 펠로우십에서 선정된 도시 연구 기반 시각예술가 1명에게 10 개월 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번랩의 레지던시는 학과 중심의 다른 레지던시보다 광범위한 어번랩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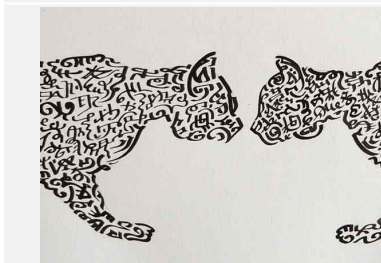
작가의 관심 주제가 사회정치적 삶의 공간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는 작업, 집중적인 매체 탐구 작업, 형식 논리를 통한 대안적 세계관을 제안하는 작업(예컨대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나 파라메트릭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순환적 도시생태론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등은 이 같은 다학제적인 논의와 협력을 도모할 때 시야를 넓히고 대안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지식생산을 통한 예술적 재현, 예술적 재현을 통한 지식생산이라는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내 아티스트-인-레지던스는, 학문적 논리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미학적 언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 앤디 샤랄람부스(Andy Charalambous), '싱귤러리티'(Singularity), 2012

1) 앤디 샤랄람부스(Andy Charalambous)

- 고에너지 레지던스, 천문학 레지던시 작가 & 명예 리서치 펠로우, UCL 물리/천문학
- 고에너지(High Energy Physics, HEP) 분야에서 작가 레지던시가 시작된 것은 2011년, 천문학 그룹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고에너지와 천문학 레지던시 모두 각 전문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작업의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토론, 협력해간다.
- www.andycharalambous.com



2) 마가리타 사드(Margarita Sa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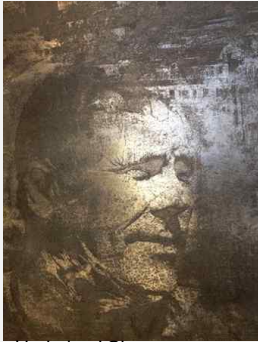
- 레버훅 트러스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불문학, 티모시 매튜 교수(Prof. Timothy Mathews)와 협력
- '번역, 전사' (Translation, Transcription)
- 2014년 10월 ~ 2015년 7월



© 마가리타 사드(Margarita Saad), '번역, 전사'(Translation, Transcription), 2014-2015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옮기는 올리피안(Oulipian)에 관한 탐구에 기초한 시각예술 작업이다. 사드는 프랑스의 올리포 그룹의 제약과 통제 하에서 생산되는 영문 번역본의 물질적 기호와 미학적 결과물을 탐구하였다.

www.translationtranscription.wordpre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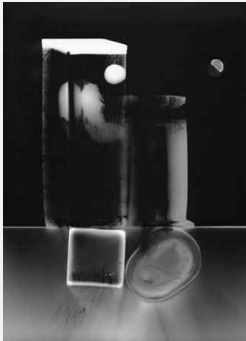
© 힐러리 파월(Hilary Powell), 현재 리노베이션이 진행중인 UCL 바틀렛 건축학교 건물 터에서 발견한 아연의 세부. UCL 철거 계약자인 앤디 매클라클란(Andy Maclachlan)의 초상 (산화 부식)

3) 힐러리 파월(Hilary Powell)

- 레버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화학과
- '도시 연금술' (Urban Alchemy)
- 2014년 10월 ~ 2015년 7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이러한 변화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이야기와 숨겨져 보이지 않는 화학적 속성을 끌어내어 노출시키는 프린트 실험을 한다. 파월의 작업은 UCL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도전, 2015 런던 건축 페스티벌 연계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www.hilarypowell.com/urbanalchemy



© 엘리노어 모건(Eleanor Morgan)

4) 엘리노어 모건(Eleanor Morgan)

- 레버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그랜트 동물학 박물관
- '글래스 딜루전' (The Glass Delusion)
- 2014년 10월 ~ 2015년 11월

엘리노어 모건은 그랜트 동물학 박물관에 소장된 육방해면류(Glass Sponges)를 가지고 작업한다. 심해에 서식하는 육방해면류는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인 실리카 90퍼센트로 구성된 생물이다. 판화, 조각, 비디오, 드로잉을 통해 작가는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여 어떻게 유기적인 구조 혹은 비유기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www.eleanormorgan.com



5) 조이 쉰허(Zoe Schoenherr)

- 레버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토목공학, 닉 테일러 교수(Prof. Nick Tyler)와 협력
- '지각의 감각과 개인성' (Kinaesthetic and the Individuality of Perception)
- 2015년 1월 ~ 2015년 11월

시각적인 것을 넘어선, 촉각과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지각을



© 조 쇠허(Zoe Schoenherr), '퍼스펙스 모델'(Perspex Model)

탐구하는 연구로, 이층 버스를 통해 변화하는 움직임과 그에 관한 지각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버스의 건축성/구축성을 상호의존적인 관계적 파트너로 상정한다. 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쇠허는, 한 댄서의 동작이 다른 댄서에게 전달되는 컨택 임프로비제이션(Contact Improvisation)을 전문으로 하는 무용가 두 명과 공동으로 작업한다. www.zoeschoenherr.co.uk



© Кат 오스텐(Kat Austen), '뉴 아틀란티스에서 일어나지 않는 파동, 크리스탈, 런던'(Not Waving at New Atlantis, The Crystal, London), 2015

6) Кат 오스텐(Kat Austen)

- 명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수학 & 물리학 패컬티 /
- 레지던시 저술가(writer, 2013 ~ 2015), 레지던시 작가(2015 ~ 2017) UCL 수학 & 물리학 패컬티로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Кат 오스텐 박사는 과잉관계/연결의 시대에 네트워크와 지식의 생성, 증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벤 리슈만 박사(Dr Ben Lishman), 안드레아 셀라 교수(Prof. Andrea Sella), 조안나 마샬-쿡(Joanna Marshall-Cook), 레 하버드 박사(Dr Rae Harbird), 스티븐 헤일스 교수(Prof. Stephen Hailes)와 협력하고 있다. www.katausten.com



© 프렌치 & 모터스헤드 (French & Mottershead), '애프터라이프(숲)' (Afterlife(Woodland)), 2014 사진: 밀레나 베르가라 산티아고 (Milena Vergara Santiago)

7) 프렌치 & 모터스헤드(French & Mottershead)

- 방문연구 펠로우, UCL 구축환경대학원 패컬티(바틀렛), 바바라 페너(Dr Barbara Penner), 케런 레비(Prof. Caren Levy), 캐롤린 랜도(Dr Carolyn Rando)와 협력
 - '공공공간에서의 수행 파워' (Performed Power in Public Space). 2015년 1월 ~ 2015년 4월
 - '애프터라이프' (Afterlife), 2014 5월 ~ 현재
- 레베카 프렌치와 앤드로 모터스헤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장소와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상황을 구축한다. 개입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아의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각적인 내러티브를 몸과 마음에 개입시키는 방식을 통해 예술을 경험의 장소로 활용한다. '공공공간에서의 수행 파워'에서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희롱, 공공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쾌하고 두려운 인터랙션, 이를테면 뻘뻘 쳐다보기, 야유, 모욕, 불쾌한 신체 접촉, '우연한 접촉' 등을 관찰하고 이를 탐구하며 수많은 스케치를 그려나간다. '애프터라이프'는 청각적 내러티브를 통해 관객을 불러들여, 죽음 이후, 다른 환경—낙엽이 떨어지는 숲, 기온이 조절된 미술관, 도시의 수로, 집안 등—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www.frenchmottershead.com



© 맥스 콜슨(Max Colson), '버추얼 컨트롤'(Virtual Control), 2015

8) 맥스 콜슨 (Max Co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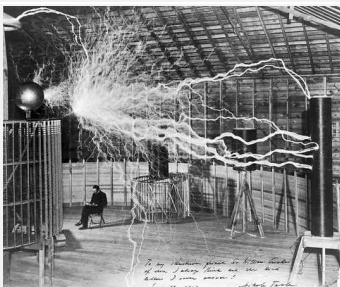
- 레버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어번랩, 벤 캠킨(Dr. Ben Campkin) 박사와 협력
 - '버추얼 컨트롤' (Virtual Control)
 - 2014년 9월 ~ 2015년 6월
- 맥스 콜슨은 사진 작업을 통해 통제된 도시 공간을 탐구한다. UCL 어번랩 레지던스 과정 중에 벤 캠킨 박사와 협력하며 진행한 그의 사진 작업 결과물은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에서 '보안과 어반 이매지네이션'(Security and the Urban Imagination)(2015년 7월-9월)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통해 소개되었다.
- www.maxcolson.com



© 탐 월슬리(Tom Wolseley), '샤돌로지'(Shardology), 2015

9) 탐 월슬리 (Tom Wolseley)

- 레버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어번랩, 앤드류 해리스(Andrew Harris)와 협력
 - '샤돌로지' (Shardology)
 - 2015년 5월 ~ 2016년 2월
- '샤돌로지'는 UCL 어번랩과 지리학자 앤드류 해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2013년에 오픈한 런던의 95층 건물 샤드(The Shard, 렌초 피아노 건축)을 통해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환경의 변화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관찰한다. 월슬리는 복합적인 주제들을 내러티브에 기반한 필름 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하면서 자신의 방법적 과정을 반추하기도 한다.
- www.architrope.com



© 고르다나 노바코비치(Gordana Novakovic)

10) 고르다나 노바코비치 (Gordana Novakovic)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UCL 컴퓨터공학, 피터 벤틀리(Dr. Peter Bentley)와 협력
 - 테슬라 아트 | 사이언스 리서치 인터레스트 그룹 (The Tesla Art | Science Research Interest Group)
 - 2005년 1월 ~ 현재
- 테슬라 아트 | 사이언스 리서치 인터레스트 그룹은 2005년 노바코비치가 컴퓨터공학과와 레지던스 작가로 있을 당시에 설립한 그룹이다. 인문학 연구위원회(AHRC/ACE)와 레버룸 트러스트 펠로우십의 후원으로 과학자 피터 벤틀리 박사와 협력해왔고 현재는 컴퓨터공학과와 지원을 통해 연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UCL 어번랩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작가 및 프로젝트 리스트 (2014~2015 중심)

* 레버훅 트러스트: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펠로우십

연구기반의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영국의 레버훅 트러스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레버훅 트러스트는 윌리엄 헤스케스 레버(William Hesketh Lever)의 유언으로 설립된 후원 재단으로, 1925년부터 연구, 교육에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실용성을 앞세우지 않은 학문 중심의 연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술 분야의 펠로우십은 일반 장학금과 아티스트-인-레지던스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장학금은 전문 예술 교육 기관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펠로우십은 시각예술가들이 영국 내 교육 기관에서 최대 1년 동안 기관의 연구진 또는 학생들과 협력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펠로우십은 예술가들을 학술적인 연구 환경으로 불러들이고,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예술가와 교육 기관 사이에 새로운 상호 협력 관계, 협동 연구-작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https://www.leverhulme.ac.uk/>

도시 관련 미술 작업 연구 (영문)

[연구 1] 보이지 않는 잉여 공간: 도시 공간과 미술

들어가며

이 연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한 UCL 어번랩 리서치의 한 부분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어번랩 두 기관의 학술적 기반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전체 연구는 양방향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양측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어번랩의 다양한 연구 활동과 접근 방식을 한국 지원 기관에 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의 경우, 어번랩에서 여러 활동들, 이를테면 도시 재생에서부터 계층, 젠더 이슈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포지엄,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특히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그 안에서 미술가들이 다학제적이고 협력적인 학문적 환경에서 작업해 가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한국 미술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도시적 맥락에서의 미술을 분석하면서 미술과 도시학 두 분야 사이에서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술 작업을 도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작품을 미술사나 미학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술 작품을 모더니즘 미술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 공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공공'(대중)과 소통에 주력하는 예술, 이른바 퍼블릭 아트(때로 스펙터클로 귀결되는)라는 논쟁적인 개념어로 불리는 예술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학의 렌즈를 통해 미술을 본다는 것은 미술적 실천을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도시적 망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공간에서의 미술이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2012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런던 동부 지역의 재개발에 맞선 예술 프로젝트들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필자는 서구와 다른 근대를 지나온 한국 미술가들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도시적 맥락에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제거되거나 방치된 공간들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지, 그리고 작가 스스로 현재 위치해 있는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려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작가들이 주제나 매체로 다루는 것은 '공간'이지만 실제 이들이 찾고 추적해가는 것은 그 공간의 과거 혹은 미래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고학에서 부각된 표현을 빌면 '동시대적 과거'[contemporary past]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작업을 공간-시간(시공간)에 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고고학적인 연구 및 방법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술가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예술적 장치들을 통해 과거-현재의 흔적들을 어떻게 수집해 가는지, 그 방법적 접근 방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진행 중인 도시 재생 (Urban Regeneration in Progress)

본 연구는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가 말하는 '순수성'(purity) 개념—'제 자리를 벗어난 모든 것'(any matter that is out of place)을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근대적 성향—에 근거를 두고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폐기물' 혹은 '쓰레기'(waste)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후 지그문트 바우만이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컨텍스트에서 재해석하면서 발전되었는데, 여기에서 바우만은 폐기된 것들에 물질과 인간(실업자)을 모두 포함하면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폐기되는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잉여'(surplus)라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필자는 쓰레기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상실하면서 철거되거나 방치된, 그리하여 잊혀진 곳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 해석하면서 이것을 '잉여 공간'으로 부르려고 한다. 여기에서 교환가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면과도 관련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현재 전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위기에



처한 공간과 관련된 미술적 실천에 대해 조명한다.

1) 행동주의적 개입 (Activist engagement)

현재 진행중인 도시 재생 문제에 대해 일부 예술가들은 시위의 형태로 공동체에 개입함으로써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실제로 지켜내기도 한다. 이 때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슈를 최대한 널리 알리기 위해 주로 책, 영상, 퍼포먼스와 같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도입하는데, 논픽션 스토리텔링에 기초한 이 매체의 생산물들은 정부나 기업의 권위에 맞서는 저항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매체들은 사건의 보도 형태로 사용되면서 공동체 문제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효과를 보여주어왔다. 이렇게 이 같은 활동은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많은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토론과 논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흔히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목적을 이루어 개발 계획의 방향을 선회시키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런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해크니 해거스톤 지역의 재개발과 주민들의 퇴거 문제를 그려낸 영화 '집, 몽상'(Estate, A Reverie, 2015)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작품에서는 논픽션 스토리텔링이 사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의 방식이자 도구로 사용된다.

2) 사진: 아카이브, '아케'(arché), 기억 (Photography: archive, arché and memory)

사진은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기억되고 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매체이므로, 미술가들이 그 곳의 현재를 포착하는 데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진이 어떻게 해당 도시의 아카이브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시 공간과 시각예술의 관계를 보다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사진과 역사에 관한 논의에서 "오리지널의 진정한 내용은 역사 속에 남겨지고, 사진은 그 역사가 배출한 잔여물만을 포착할 뿐이다."¹⁾ 이것은 이미지가 실제의 기원을 망각했을 때에야 아케(arché)²⁾가 되어 아카이브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케'는 초기 그리스 철학에서 본질 또는 주요 기본 요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 이미지는 시대정신(Zeitgeist)과 접촉하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재형성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³⁾ 그러나 사진으로 남겨진 기록물들은 종종 의도된 의미 이외에 다른 뜻으로 이해되지 않게끔 다른 해석의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벤 캠킨은 앤드류 히고트와 로빈 월슨을 인용

1)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대중 장식: 바이마르 에세이》(The Mass Ornament: Weimar Essays), 토마스 Y. 레빈 번역 (캠브리지: 하버드대학출판사, 1995), p. 55.

2) '아케'(arche), 미리엄웹스터 사전.

3) 매튜 폴그라프(Matthew Vollgraff), '아카이브와 미로: 현대 이미지 아틀라스'(The Archive and the Labyrinth: On the Contemporary Bilderatlas), 《옥토버》(October) 149 (2014, 여름), p. 146. 에른스트 H. 곰브리히는 "별 그 자체는 [...]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별의 의미는 그것이 놓인 컨텍스트에서 나온다"고 말한다(에른스트 H. 곰브리히, 《애비 바르부르그: 지식인 전기》[Aby Warburg: an Intellectual Biography] [런던: 파이돈, 1986], p. 199).



하면서, 아카이브 사진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위해 도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시간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작가는 아카이브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하나의 의미에 고정되지 않고 시간과 만나는 접촉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아케’를 창출해야 한다.

미술가들은 공간의 현재를 기록하고 과거를 불러일으키려는 열망에서 도시 개발에 관한 사진 작업을 한다(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기억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의 미학심리학 전문가인 매튜 풀그라프(Matthew Vollgraff)⁵⁾는 사진이 기억의 구멍이며, 기억이 아니라 망각의 지점이라고 주장하면서⁶⁾ 해당 환경의 일시적인 상태는 우리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⁷⁾ 사진이 개인의 기억-이미지를 향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존재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임시 상태로 남겨진다는 말이다. 예컨대 윤길중의 사진은 도시 재생의 장면 즉 철거와 건설, 나타남과 사라짐, 과거-현재, 현재-미래의 중간 경계에 위치하는 현장을 포착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이미지들은 도시 개발에 관한 집단적 기억에 비교적 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러티브를 창출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공유한 기억-이미지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강흥구의 사진은 이와는 다른 내러티브를 그려낸다. 오래된 주택가 길 위에 주차된 차와 벽에 게시된 커다란 제임스 딘 포스터, 화면 중앙에 놓인 확대된 생선의 이미지는 작가 자신의 기억-이미지에 닿는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후각적, 촉각적인 다른 감각들까지 자극함으로써 이미지의 울림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과거 혹은 사라져가는 현재에 관한 사진 이미지는 보는 이들의 지각과 연결점을 만들어 기억-이미지에 맞는 도구로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재현하고 써 나가는가와 깊이 연관된다.

한편 일부 작가들은 이미지와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도구로 사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정지현의 ‘데몰리션 사이트’(2014)의 경우, 작가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 내부를 붉은색으로 페인트로 칠한 후 철거되면서 붉은 벽들이 해체되고 건물 잔해 속에 묻혀가는 과정을 카메

4) 벤 캠킨(Ben Campkin), ‘스티븐 질이 묻은 것 그리고 해크니 위크: 발굴’(Buried by Stephen Gill and Hackney Wick: an excavation), 힐러리 파월, 아이삭 마레로-기야몽 엮음, 《저항의 예술: 런던올림픽국가에서의 모험》(The Art of Dissent: Adventures in London’s Olympic State), (런던: 마쉬게이트 출판사, 2012), pp. 112~123; 티모시 레이, 앤드류 히고트 엮음, 《카메라가 구축한다: 사진, 건축, 근대도시》(Camera Constructs: Photography, Architecture and Modern City) (London: Ashgate, 2012), p. 18; 로빈 월슨, ‘장르의 한계에서: 건축적 사진과 유토피아적 비평’(At the Limits of Genre: Architectural Photography and Utopian Criticism), 《저널 오브 아키텍처》(Journal of Architecture) 10, no. 3 (2005), pp. 265~273 참고.

5) 프린스턴대학교 인문학 다학제 (독어학 전공) 박사과정

6) 풀그라프, p. 143.

7) 크라카우어, p. 62.



라에 담아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과거-현재에 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재개발/재생에 관한 작가 자신의 경험이다. 이 같이 퍼포먼스에 기초한 사진적 이미지들은 구축 환경에 관한 개념적 실험 및 그것이 인간과 맺는 관계—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작업에서처럼—와 도시 재생과 연관된 사회적 생태에 관한 코멘트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 관한 퍼포먼스가 행동주의적인 입장 표명 없이 어떠한 대안적 잠재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진 작업은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이 어떤 식으로든 내러티브 쓰기와 시공간적 경험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현재의 장소에 관한 작업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접근만큼이나 시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흔적을 찾고 [픽션 또는 논픽션] 내러티브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고고학, 나아가 범죄과학수사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리고 장소가 사라진 경우, 방치되거나 잊혀진 경우, 그 공간에 축적된 시간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작가들은 복합적인 표현 방식을 결합하거나 다양한 감각적 매체를 도입하면서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해 간다.

2. 잊혀진 공간 (Forgotten Spaces)

위에서 언급한 예들이 현재 철거가 진행중인 사라져가는 공간 즉 과거-현재에 관한 것이 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독재체제,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미 철거되었거나 방치된 공간들에 관한 작업들이 존재한다. 사회는 이 곳에 새겨진 트라우마로 인해 이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지도 과감히 철거하지도 못하여, 결국 이러한 공간은 역사의 모순적인 심리 사이에 끼어, 집단 정신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다시 찾는 미술가들의 행위와 작업을 통해 우리는 그 장소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사건들과 동시에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도시 재생 또한 역사 및 그와 연관된 장소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인식이나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장소들의 재개발은 단순히 오래된 낡은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가 현재 도시의 망 안에서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사회적, 역사적 태도와 연관된다. 이 점에서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공간적인 이슈—불결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제거—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및 과거와 겹쳐 있는 현재의 제거 혹은 방치(대상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방법)라는 시간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공간적인 것에서 시간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들은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폐기된 시간/



역사에 끼어들고 그 시간을 다시 불러내려 한다.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해도 그에 대한 반응은 각 국의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아시아 식민지(미국 영토와 러시아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역에 일제의 신사를 세웠다. 일본의 미술가 시타미치 모토유키는 '도리' 프로젝트(2006~2012)를 통해 독립 이후에 각국의 문화적 성향과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신사의 출입문인 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연구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고, 특히 타이완의 경우에는 도리를 공공 벤치로 사용하는 등 일상적인 구축 환경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단 두 개의 도리만, 그것도 거의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는 한국이 역사적 트라우마—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기간과 독재정치체제 기간을 포함하여—가 밴 산물을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애써 제거해왔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1) 억압된 공간 (전쟁과 독재체제): 촉각적 경험 (Suppressed spaces [war and dictatorial regimes]: tactile experience)

서도호의 '탁본' 프로젝트(2012)는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완전 봉쇄되고 150여 명의 일반 시민이 군부대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했던 사건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반응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에서 서도호는 현재 광주시내에서 방치된 건물들을 선택하고 미술 전공 학생들과 함께 눈을 가린 채 건물 내부 각 방의 벽면을 탁본하는 퍼포먼스를 시행한다. 그는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상태를 통해 1980년대 당시에 정치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었던 상황을 퍼포먼스 수행자들이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고 말한다. 즉 차단되고 억압된 상황에 대한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촉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민주화운동 당시 일반인이 거주했던 이 공간들에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춰낸다.⁸⁾ 이 프로젝트에서는 탁본의 시각적 결과물보다 이 같은 촉각적 경험의 과정, 퍼포먼스 그 자체가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점에서 탁본 작업은 건물의 흔적을 채집하는 것이라기보다 당시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발굴하는 고고학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혜주(베를린)의 초기 프로젝트 '환각지'(幻覺肢: 절단된 팔/다리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2004)는 베를린 시내 곳곳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을 캐스팅한 주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쟁 기간에는 전 국토가 폐허 상태가 되어, 전후에 이루어진 도시 재건은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건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전쟁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8) Refer to the exhibition introduction, Lehmann Laupin, 2014.



언급했듯이 한국 문화에는 도시 공간에 남겨진 트라우마의 자국들을 뿌리뽑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전해주는 한국을 벗어나 다른 지역적 컨텍스트 (2차 대전 기간 동안 베를린 역시 유사한 전쟁 상황을 겪었지만)에서 그 흔적을 취하고 그것에 심리적 동화를 불러 일으키면서 작가 자신과 한국의 집단적 기억 안에 그 자국들을 이식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탁본과 주물 성형은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한편 위 작가들의 고고학적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작가의 수행 과정, 발굴의 경험이다. 서도호의 작업에서 눈을 가린 이들의 탁본 작업, 전쟁의 흔적을 찾아 베를린 시를 돌아다니는 전해주의 발굴 과정은 일종의 수행적 퍼포먼스이며, 이러한 수행적 경험의 과정은 인간의 정신과 감성으로 연결되는 촉각적인 물질로 귀결(발굴)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내러티브로 불러내어 재기술한다.

2) 산업화의 잔여물 (Buried remnants of industrialization)

산업시대, 소비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로 매립지를 들 수 있다. 난지도 매립지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의 시 지정 매립지로 기능하였고, 폐쇄 이후에는 토지의 안정화 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공원으로 변모, 유지되고 있다. 공원 안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에 참여했던 일부 미술가들은, 현재 친환경적 공원 경관으로 덮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매립지 쓰레기에 관한 작업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이원호와 김준은 공원의 외부와 매립지 내부의 두 상충하는 공간적 성격과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불안한 장소감을 각각 다른 매체와 방법을 통해 재현하였다. 이원호는 이 공간의 다층적인 감각, 즉 표면의 평화로운 경관, 공원 옆에서 행해지는 군사 훈련(항공기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지하에 묻힌 쓰레기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악취 등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풀어낸다.

항공대 학생들의 훈련용 비행기는 거의 매일 수십 번씩 난지도 위에서 굉음을 내며 거대한 원을 그린다. 툼툼이 군용헬기도 제 역할이라는 듯 하루에 몇 번씩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난지도의 하늘을 가르다. [...] 예전에 악취를 풍기던 난지도는 이젠 없다. 그렇다. 그들은 냄새와 함께 이제 땅 속 깊이 묻혔다. [...] 곱게 잔디로 포장되어버린 주목 받지 못한 역사와 이야기들은 어떻게 환원되어야 할까? [...] 이미 오래 전부터 옷에 깊이 배인 케케한 냄새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 또한 여전히 난지도의 공간 저 아래 깊숙이 존재한다. [...] 지금 난지도 위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까지 교묘하게 은폐하며 기꺼이 망각의 공간을 제공하려 하지만, 저 밑 어둠 속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한 낯은



의구심 또한 지속적으로 동반한다.

- '(난)지'에 관한 작업노트 중

사운드 아티스트 김준은 공원(외부)과 매립지(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들을 채집하는데, 두 사운드—공원에서 들리는 벌레나 빗방울 소리 같은 소위 자연의 사운드와 매립 쓰레기의 화학적 반응에서 나오는 거슬리는 소음—사이의 극명한 대비와 충돌은 이 장소의 기묘한 불안감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3) 중첩된 근대 공간: 경험과 [준-픽션] 내러티브 (Conflated modern spaces: experience and [semi-fictional] narrative)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면 김성환의 '게이조의 여름 - 1937년의 기록'은 한국의 근대화에 담긴 중층적인 면모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상은 스웨덴의 동물학자인 스텐 베리만(Sten Bergman)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쓴 기행문 《한국의 자연과 마을》(In Korean Wilds and Villages)에 기초하여 픽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경성의 일본어 표기인 게이조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서울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 비디오에는 네덜란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베리만의 행로를 재추적하면서, 주로 1950년대 이후에 재건된 현재 서울시의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는데, 이 현재 서울 공간의 장면들은 베리만이 1937년대에 목격한 '근대' 도시 서울에 관한 묘사적 내러티브—구두 언어로 표현되는—와 겹친다.⁹⁾

베리만의 책에서 그려진 1930년대 서울 시내 풍경과 주요 건축물—조선호텔과 조선총독부 건물 등—은 주로 일제의 전-아시아(pan-Asian) 스타일 도시계획과 건축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김성환의 비디오 작업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은 서울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조선 시대 왕궁인 경복궁 내부에 세워졌지만, 건물의 철거에 관한 오랜 찬반 논란 끝에 1995년 철거가 결정되고 경복궁의 본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김성환은 베리만이 기록한 근대 도시 서울의 풍경 위에 전쟁 고아와 급속한 산업화의 스토리를 통해 한국 전쟁과 전후에 전개된 폭주적 산업화의 이야기를 덧입히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가 김수근이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 도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따라 1960년대 말에 디자인 한 '세운상가' 건물과 같은 현재의 구축환경과 그것을 반영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9) MIT 리스트 비주얼 아트 센터 김성환 개인전 (2009) 서문 참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작품은 베리만의 논픽션 스토리에서 작가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들에 기반한 픽션으로 변화해간다. '게이조의 여름 - 1937년의 기록'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의 중첩된 근대 풍경 재현, 중층적 역사적 장소들에 관한 총체적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은 새로운 내러티브 쓰기로 이어지고, 준-픽션 내러티브는, 다시, 관객이 20세기 근대 한국의 시공간을 경험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요컨대, 베리만의 공간 경험이 내러티브로, 영상 속 배우의 공간 경험으로,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내러티브로 재창출되고, 관객들이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써 나갈 수 있는 경험 공간을 열어준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상호 교환적, 반복적 내러티브 쓰기이자 경험 공간 만들기이다.

결론: 과거-현재 공간(Conclusion: Past-present space)

이 글에서 도시적 환경/무대(urban setting)은 비단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축적된 시간까지 포함한다. 철거되거나 방치된, 잊혀진 장소에서 작가들은 묻혀진 역사적 시간들을 파헤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문맥으로 불러들인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의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쓰기의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작가 자신이 내러티브를 써 내려가는(혹은 구축해가는) 경험의 과정이기도 하다.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이 같은 미학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과거-현재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역사적 구멍/공백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 걸쳐 있는 장소와 그것에 관한 작업의 예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전쟁은 반 세기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에는 과거와 현재의 군사 시설이 공존하면서 두 개의 시간 영역이 겹쳐 있는 지점에 놓여 있다. 한국의 도시 영역은 이렇게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정치적 자취들이 중첩된 공간이고 그 증거물로서의 구축 환경은 마치 문화적 쇠신을 이루듯 거듭되는 개발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공간은 DMZ처럼 과거-현재의 연결 공간이어서, 폐기된 영역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찾고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폐기된 구축 환경과 그 시간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감각적 재현의 방식이 더 많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사진 작가 박진영은 '후쿠시마 아카이브'(2014) 프로젝트를 통해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이후 도시에 남겨진 잔해들을 포착해왔다. 이 대재앙의 장소



에 관해 작가는 “[이것은] 부수기엔 위험하고 버리기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이 같은 과거의 재난, 트라우마적인 사건에는 결정적인 종결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사건의 시간은 지옥의 변방 또는 연옥에 머물면서 현재와 미래의 도시 공간 경험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2] 공공공간에서의 보안-감시-통제: 이중적 비가시성의 책략

공공공간은, 사유화되었던 정부 관리하게 있는 관계 없이, 공간 계획과 구조적 디자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에의 접근과 그 안에서의 행동 방식을 규제한다. 19세기 바롱 하우스만이 주재한 파리의 도시 계획에서 불르바르도로 불리는 넓은 시내 중앙 대로는 당시 권력의 모체인 나폴레옹 3세와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 이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푸코가 파놉티콘을 통제의 건축적 구현물이라고 했듯이 건축 디자인은 종종 공간을 코드화하고 그 구조 안에서 특정인들의 접근과 행동을 제약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최근 들어 점차 사유화 되는 공공공간, 그리고 디지털화 된 보안 시스템 환경에서 확실히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정치학을 시각 언어를 통해 재현해내야 하는 과제로 다가온다. 또한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우리는 ‘공공공간이 왜 문제가 되는가’, ‘보안은 공공(퍼블릭)’을 위한 것인가, ‘공공은 누가 구성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물음들을 재고하게 된다.

공공공간 전문가이자 법률학자인 네이션 무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연결된’ 개인들의 무리를 생산할 뿐인 데 반해, 실체화 된 존재로서의 공공은 몸(체)을 필요로 하고 이들은 어딘가에 실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실체화된 공공은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바로 공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¹⁰⁾ 무어는 법률적인 의미의 공공공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공공공간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타의에 의해] 불려나갈 수 없는 곳이다. 즉 공공공간에 있는 자는 누구도 그 곳에 있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그 곳이 공공공간이다.¹¹⁾ 그러나 무어는 이것이 공공공간에 대한 매우 이상화 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공공공간에서는 언제나 논란과 배제가 일어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오늘날 그러한 공간에 있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곳에 있는 것을 정당화 하고, 아무 것도 감추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

10) 네이션 무어(Nathan Moore, Lecturer, School of Law,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맥스 콜슨 개인전 ‘버추얼 컨트롤’(Virtual Control, RIBA, 2015. 7~9월) 심포지엄 발제 내용 중에서 (2015년 8월 11일11), p. 1.

11) 위의 글.



도록 준비해야 한다.”¹²⁾ 요컨대, 공공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암묵적인 요구에 대하여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고 그들이 마련해 놓은 비가시적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보안 시스템은 도시적 삶의 한 장치로서, 주체의 통제적 감시의 눈과 그 통제의 시선에 사로잡힌 대상 간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시선 주체의 역할은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 올(포함 될) 자격 요건이 되는 자와 되지 않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 서비스의 본질은 포함된 것과 배제된 것을 가르는 ‘경계’ 만들기에 토대를 두게 된다. 결국 이것은 배제의 정치학이다. 보안 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시스템의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제 이들은 현재 누군가 위치한 장소(보안 영역의 내부 혹은 외부)의 경계뿐만 아니라 감시 주체의 존재까지 감춘다. 아울러 무어는 보이지 않는 매체(주로 전자 매체), 보이지 않는 경계에 의해 작동되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름 아닌 디지털 정보학이라고 말하는데¹³⁾ 이는 곧 “규정의 준수와 하나로 수렴하기, (감옥과는 다른) 그러한 공간들을 구제하는 권력의 매커니즘이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이들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눈(目)으로 볼 수 없는 눈(雪)처럼 공공공간을 뒤덮고 있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다.”¹⁴⁾ 공공공간은 공공연히 또는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같은 배제의 장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간보다 배제의 정치학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은밀히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 만큼 이를 노출시키고 고발하는 데는 고도의 전략적 기술이 요구된다.

보안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공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공공공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품행이 방정한, 적합한 시민을 구분해내는 특정한 분리의 체계를 만들어낸다. 공간의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뿐만 아니라 공간디자인, 퍼블릭 퍼니처 등도 이러한 분리에 기여하는 도구들이다. 따라서 공공과 비공공을 나누는 경계는 제한된 사회경제적 그룹(이를 테면 특정 수준의 소비가 가능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점차 축소되고, 실체화된 공공은 자율적인 행위가 허용된 공간을 박탈당한다. 보안, 감시 시스템이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은, 공공이 능동적으로 공간적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공공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무력화한다는 데,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시스템 하에 처해 있는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불구화한다는 데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이 같이 이중

12) 무어, P. 2.

13) 무어, P. 1.

14) 무어, P. 2.



적인 전략적 비가시성의 장치 속에서 시각예술가들은 권력의 작동 기제를 어떻게 가시화하여 노출시킬 수 있을까? 권위적 시선은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통제 권력은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는가?

2014~2015 UCL 어번랩 레버훔 트러스트 아티스트-인-레지던시 작가인 맥스 콜슨은 도시 공간 도처에서 나타나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제기한다. 초기작 '숨바꼭질'(Hide and Seek)에서 콜슨은 흔히 식물(자연의 순수성)로 덮여 감추어져 있는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점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 연작에서 작가는 아담 워커-스미스(Adam Walker-Smith)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연극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보안 장치를 마치 의인화된 실체로 담아냄으로써 장치 뒤에 감춰져 있는 감시의 시선과 그 주체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뒤 이어 '고도의 통제 환경을 위한 친근한 제안'(Friendly Proposals for Highly Controlling Environment) 연작에서 콜슨은 조작, 변형된 디지털 사진을 통해 말 그대로 친화적인 통제 시스템을 제안한다는 풍자적 내러티브를 제시하여, 이 시선들이 어떠한 전략적 방식으로 공공공간에, 또 삶의 환경에 침투해 있는가를 폭로한다.

2015년 어번랩 레지던시 기간에 진행한 최근 프로젝트에서 콜슨은 점점 더 기술과 사유 자본에 잠식되어 가는 몰입형 공간을 재현하는 시각적 기제를 고안해냈다. 그것은 납작하게 평면화된 2차원 공간이 아니라, 압축되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차원의 공간이다. 그는 각각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스펙터클한 비전을 반영하는 상투적인 문구의 배너를 결합해 선보였다. 이러한 이미지-텍스트의 결합 형태는 사회적 코멘트를 담은 작업에서 사용되어 온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기호학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차용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와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은 오래 전 크레이그 오웬스가 말한 '메두사 효과: 시각적 책략,' 시각적 주체와 대상의 이미지적 정체화, 즉각성, 사로잡힘/사로잡음, 스테레오타입화의 개념을 상기시킨다.¹⁵⁾ 이미지-텍스트의 변형적 조합은 전복적인 충돌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간다. '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시리즈에서 콜슨은 자신만의 절제 되면서도 풍자적인 어조로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도시 재생의 문제를 비판한다. 밝은 색조의 그레데이션으로 표현된 구획 없는 공간을 통해 작가는 텍스트에서 표명하는 희망적인 슬로건과 어떠한 충돌도 빚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가 창출한 무차원의 공

15) 봉합(suture)라는 정신분석학 용어 대신 (의학적 시술에서 가져온 용어로, 벌어진 상처의 양쪽을 결합시킨다는 의미). 크레이그 오웬스는 '메두사 효과'에서 이 용어를 새로운 말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장치가 젠더 스테레오타입 이슈에서처럼 사회경제적 [계층] 공간의 문제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크레이그 오웬스, '메두사 효과,' 《인식을 넘어: 재현, 권력, 문화》(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UCLA출판사, 1992], p. 198).



간에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은 미묘한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 '개성 넘치는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배너 텍스트 문구)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느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공간의 실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맥스 콜슨과의 대담] 공공공간과 공간의 통제가 왜 문제인가?

김정혜: 2015년 UCL 어번랩 리서치(VIA 펠로우십)는, 근대화가 폐기물(쓰레기) 처리와 보안 감시 산업을 불가피하게 낳았고 사회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에서 출발하였다. 이 두 산업은 분명 '공공'을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대적 도시풍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공공'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당신의 전시 토크에서 공공공간 전문 법률학자 네이션 무어가 언급했듯이 '버추얼 컨트롤'(전시 제목)은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또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가에 물음을 제기한다. 우선, 당신의 작업에서 공공공간은 무엇을 지칭하고, 전반적인 논의에서 '공공'을 규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둘째, 역사적으로 공공공간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던가를 본질적으로 되짚어보고 싶다.

맥스 콜슨: 공공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 할 필요 없이(규범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공공공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공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공간은 완전히 공적으로 소유된 영역으로, 거리, 공원, 마을과 도시의 중심 공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들은 지역 당국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이 곳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문 당하거나 쫓겨날 염려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그 행위는 다른 공공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공간은 공공의 행동/태도가 역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이다. 행동/태도는 개인과 다른 공공의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개인이 가진 매너와 도덕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공간은 개인이 타인과 협의하고 타인의 행동/태도를, 이성적 논리 안에서, 참아내는 공간이다. 공공공간에 있다는 것은 공간의 복합적 사용 방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다 맞지만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런 공간들은 경제적인 요인들(특정한 그룹이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태도와 인구의 혼합을 규제하는 것)보다 '공공의 선'을 우선시한다. 공공공간을 나타내는 핵심은 사람들의 행동/태도가 일어나는 그대로, 하나하나의 사건에 기반하여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내 작업에서 '공공'이란 용어는, 열림, 자유로운 움직임, 포함, 접근성과 같은 개념과 연관된 고도로 규제된 사유화된 환경과 연관된다. 공공공간은 물론 대단히 낭만적인 개념이고, 그러한 측면은 사유화된 공공공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 현재 나는 정부이건 기업이건 공간을 통제하는 권위적인 힘에 관한 논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첫째, 공공의 선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철거하는) 방식으로, 둘째 특정한 행동/태도를 매끄럽게 생성하면서 특정한 그룹과 계층을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통제된 닫힌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공간을 통제한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분명히 후자와 보다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권위적 힘의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그런 것이 있다면). 내 연구는 기업 체제가 현재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콜슨: 사유화된 공공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력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영국의 경우, 랜드 시큐리티스, 해머슨 브리티시 랜드, 브로드게이트 에스테이트)이 쥐고 있다. 이들은 보안을 통제함으로써 사유화된 공공 영역을 손에 쥐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한다. 이들의 목적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사무용 건물과 사유화된 공공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공공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브리티시 랜드의 CEO가 한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거쳐 패딩턴 인근의 대지를 매입하고 패딩턴 센트럴 사적공공 단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사고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인터뷰).

그러나 이 개발업체들이 존재하고 대지를 개발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다. 기업들이 토지를 강제 매입하여 지역의 ('공공의 선'보다) '경제적 선'을 구현하는 사례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법적인 변화가 계속 있어왔다 (애나 민턴은 저서 《그라운드 컨트롤》(Ground Control)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 새로운 공공 영역을 만들고 유지, 관리할 여건이 안되는 중앙 정부의 자금을 제한하고, 토지 개발업체들에게 공공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지역 당국자들도 있다. 런던 시 정부와 시장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끔 방치해오고 있다.

권력이란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어느 한 쪽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을 공적 권한만으로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타인의 자금과 자신의 공공 영역 일부를 거리낌 없이 맞바꾸려하는 태도가 존재하고, 사유화된 공공 환경은,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 푸코가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권력 체계를 전제로 하는 작업인가?

콜슨: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지배하는 통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 스스로 부과한 통제 형태에서는 푸코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CCTV에 녹화되는 것,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유한 사용자들의 움직임, 타 기업 공간의 소재를 따라 흥내 내는 것 등은 공공공간이 아닌, 어디쯤에서 선을 지켜야 하는 전문적인 공간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둘째,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디지털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기도 한다. 브로드 에스테이트가 판매하는 비시니티(Vicinitee)라는 자산 관리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향상시키고, 누구든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게 한다.' 패스 인텔리전스(Path Intelligence)같은 모니터링 스마트폰 시스템은 상업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면 레이더망 같은 형태의 모니터링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브로드게이트 에스테이트는 또한 거대한 CCTV 사무실에 앉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지켜본다. 물론 이것은 일반 공공에 공개되지 않는다.

김: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는 예술 작업은 눈에 쉽사리 띄지 않는 사회정치적 사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Images of Enjoyment and Spectacle) 프로젝트에서 당신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들춰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스마트하면서도 단순 명료한 장치—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현존에 파고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장치—를 만들어낸 것 같다. 우선 사진이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매체인지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관련하여 올리 팔머(Ollie Palmer)와의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팔머는 얼굴 인식 감시 장치를 설치물로 제작, 설치하여 콜슨의 전시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했다).

콜슨: 지금은 감시 장치가 구축 환경의 기능적인 디자인에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식별해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전통적인 사진의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스펙터클과 미적으로 유쾌한 것들을 기록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매체이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사진계에 있는 이들은 평범하고 기능적인 도시 디자인의 이미지를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권력은 특히 존재를 드러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수 많은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



라서 나는 사진을 증거로서의 결합(‘숨바꼭질’ 프로젝트에서처럼), 인위적인 재현에서 일어나는 공모 관계(‘즐거움과 스펙터클의 이미지’), 디지털 조작을 위한 캔버스로 활용하는 것(‘고도의 통제 환경을 위한 친근한 제안’) 등을 인식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한다. ‘숨바꼭질’은 도시의 녹지대에 숨겨져 있는 감시 장치에 대해 편집증을 가진 또 다른 자아(아담 워커-스미스)를 등장시킴으로써, 갈수록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나 도처에 산재하는 감시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에 관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올리 팔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식물 등으로) 가장한 것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편집증적인 다이내믹을 통해 관람객들을 능동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우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감시 시스템 가운데 카메라에 포착된 얼굴을 트래킹 하는 테크놀로지로 미국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택했다. 이 작업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스펙터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장치의 진정한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분산시킨다. 이러한 관심사를 제기하는 조각적인 형태는, 구축 환경의 망 내부에 자리하는 통제 구조 속에서 한결 더 쉽게 동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물음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또한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사진적 데이터가 (단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물리적 유연성이라는 본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펠리시티 해먼드(Felicity Hammond)의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먼드 역시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felicityhammond.com/>

김: 올 가을 PAMELA 전시에 선보인 3D 애니메이션과 설치를 결합한 작업에서는 공공공간과 자본, 점유의 문제를 공공 교통수단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한다.

콜슨: 최근에 ‘새로운 투자 교통수단’(A New Investment Vehicle)이라는 제목의 3D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이것은 런던의 버스 시스템에 프리미엄석과 일반석으로 구분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여 중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가상의 투자 유치 제안 비디오이다. 이 작업은 구축 환경의 재개발에 있어서 3D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도시 공간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연장선상에 있고, 아울러 사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생각도 담고 있다.



글. 김정혜

홍익대학교 미술사 석사, 보스턴대학 건축사 석사, UCL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사/이론 박사 과정 중에 있다. 2000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코디네이터 이후 (주)얼트씨에서 국제문화기획 팀장과 디자인플럭스designflux.co.kr의 초대 편집장을 겸했다. 2001년 이후 10여 년간 서울시의 디자인도시 만들기와 관련한 기획 및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문화가 문화산업으로 또 디자인이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 유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공간성과 장소성은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목격하여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주요 활동 분야는 미술-건축-디자인을 관통하는 다학제적인 영역이며, 도시공간과 시각환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1년 건축사 석사를 마친 후부터 한국에서 강의와 연구, 편집과 번역에 활동에 집중하면서 박사 학위 연구와 병행해오고 있다. 공공연구는 주로 국가·시 정부 기관의 연구 용역으로, 미술·디자인 기관의 설립이나 활성화에 필요한 큐레토리얼 프로그램 기획 연구를 담당하였다. 미술·디자인 관련 편집과 번역으로는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전시 행사의 도록이나 저널(광주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noon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단행본 번역서로는 할 포스터의 미술·건축 이론서 <복합공간>(현실문화, 2014), 보리스 그로이스 외 <큐레토리얼 담론 실천>(현실문화, 2014)이 있고, 디자인에 있어서 우연적 구성의 해방적 가능성을 다룬 찰스 젠크스와 네이션 실버 공저의 <애드호키즘>(가제)(현실문화, 2015-16)이 출판될 예정이다.

※ 본 기사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사진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5